

밥이 하늘, 두 끼와 세 끼 간격이 아득한 곳

숙식 포함 매월 학교 운영비 300만원, 1만원이면 한아이 한달 살 수 있어

거리며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칫솔을 하나씩 나눠주고 과자도 직접 손에 쥐어 줍니다. 그러는 동안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손에 쥐어주고 어깨나 얼굴을 한 번 쓰다듬어 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겠습니다.”

영봉 스님이 아이들에게 편지 한 장을 보여 줍니다.

“이 편지는 한국의 충주라는 도시에 있는 세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과 만난 적은 없지만 한국의 학생들이 여러분을 위해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세성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학급에서 바자회를 열어 85달러를 모았습니다. 그 돈과 편지를 새생명학교에 보내 달라고 해 영봉 스님이 품에 넣어 온 것입니다. 함께 간 NLD(버마 민족민주동맹) 활동가 모우자 우(Moe Ja Woo)씨가 세성초등학교 아이들의 편지를 읽습니다.

“미얀마 친구들에게, 안녕? 우린 작년에 세성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바자회를 통해 돈을 모아 기부하기로 했어. 위 사진은 가을에 은행나무 밑에서 찍은 사진이야. 노란은행나무 잎이 예쁘지? 우리도 너희의 계절과 언어가 궁금해.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우리 사는 곳은 달라도 같은 친구야. 열심히 커서 언젠 한 번 만나자~ 세성초 6학년 친구들이.”

나눔이란 것, 자칫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있는 것을 나누고 물질은 나누는 것으로 보이기 쉽지만, 그것으로 나눔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나누려는 마음이고 나눔을 기뻐하는 마음, 나눔으로써 행복해지는 마음입니다.

“나누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이 말은, 있고 없고의 문제로 나눔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도 “자선을 행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풍부한 부자일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준비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교실에 두 학급 나눠 앉아 수업
“최근 1년 사이에 밀려드는 고아들 때문

에 응답하기 짝이 없지만 그 누구도 내칠 수 없어 들어오는 대로 받아 들이다보니 그 수가 두 배를 넘었고 지금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우 교장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소우 교장은 태국인 교사 1명과 미얀마인 교사 8명이 새생명학교를 이끌고 있지만 모든 게 부족하고 열악하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의 월급은 YWCA 산하 ‘좋은 친구들(Good Friend Center)’이 지원해 주는데 1인당 2000바트(약 8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절차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매달 7만5000바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7만5000바트는 약 300만원, 2500달러입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고아들 127명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먹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돈이 300만원이라면, 한 아이에게 드는 교육과 숙식비용이 한 달에 1만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우 교장은 이 돈이 여의치 않아 늘 곤궁하다고 설명합니다.

외부지원 외에 수입구조가 없기 때문에 늘 살림살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인심 넘치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소우 교장은 늘 웃는 얼굴인데, 그렇게 웃는 얼굴이 아니면 아이들이 불안해 할 지도 모릅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소우 교장이 가장 난감한 것은 아이들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국경지역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탓에 고아들이 늘어나고 찾아오는 아이들을 돌려 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 아이들을 받아 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잘 곳이 좁아도 좁은 대로 살아야 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살아야 할 뿐입니다.”

참으로 대책 없는 소리 같지만 그게 최선의 대책인 것이 이 학교와 메솿 인근 국



태국 메솿수용소의 미얀마 어린이들이 영봉 스님이 마련한 위문품 중 칫솔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의 현실입니다.

“학교부지는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처음엔 다른 곳에 학교를 세웠는데 너무 좁고 불편해서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구역은 개인 소유지입니다. 한 달에 1000바트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저 건너 운동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회라도 하려면 그 공터를 빌려서 써야 합니다. 여기는 난민수용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용료가 따라붙으니 더 힘든 겁니다.”

학교의 면적은 대략 1700평 쯤인데 교실과 숙소로 쓰는 4개의 건물이 있고 공터가 있고 채소밭이 있습니다. 채소밭에는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교장 내외와 교사들은 채소밭에 지극한 정성을 쏟습니다. 씨 뿌려 거둘 수 있는 채소가 아니

면 부식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 종교는 없겠군요.”

“아닙니다. 모두가 불교신자들입니다. 미얀마 국민의 90%가 불자입니다. 이 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렌족이 의외로 기독교를 많이 신봉하는데, 그것은 선교사들의 활약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자신이 불자라고 말합니다. 두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이들은 매일 아침 경전을 독송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통에 따른 일과일 뿐이지, 종교적 강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이 학교를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불교관련 국가나 단체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루 두 끼와 세 끼의 아득한 간격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부엌 앞으로 몰려옵니다. 따라 가 보니 이미 밥솥과 국솥이 나와 있고 소우 교장의 아내와 교사들이 식사를 배식합니다. 그 앞에 일렬로 줄을 서 있는 아이들은 점심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밥을 받고 그 위에 야채를 넣어 끓인 국을 끼얹어 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숟가락을 사용하는 아이도 있고 손으로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차마 물어 볼 수 없어 교사에게 물어 봅니다.

“메뉴는 자주 바뀌나요?”

교사의 눈빛이 묘합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배식할 형편이 아니라서 미안한 표정 같기도 하고, 이곳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느냐는 핀잔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학교의 아이들이 거의 모든 끼니를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최근부터라고 하는데, 고아들이 자꾸만 늘어나면 대책 없이 두 끼로 줄여야 할지 모른다는 어색한 미소를 보입니다.

밥이 하늘이라고 했던가요? 대한민국에서 보릿고개는 이제 추억의 고개에 지나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밥이 하늘이고 두 끼와 세 끼의 간격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다. 아이들은 밥을 참 맛나게 먹습니다. 이방인은 밥 한 접시를 받아들고 숟가락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아이들은 그 아말로 맛따라에게 눈 감쥬듯 밥을 먹어 치웁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은 좀 어두침침하지만 벽이 온전히 둘러쳐진 시멘트 블록 집입니다. 아이들의 수준은 다르고 교실은 적어서 그런지 한 교실에서 두 학급이 공부를 합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에 칠판이 있고 아이들은 서로 등을 맞대고 앞뒤로 돌아 앉아 구구단을 외우고 산수를 배웁니다. 선생님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보니 교실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모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는 소리가 합창처럼 마당 가득 채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자라는 채소밭의 채소들은 아이들의 주식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떠나는 우리 일행에게 소우 교장은 머리를 굽적이며 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으면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져 오신 편지에 대한 답글입니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우 교장은 그 사이 어느 학생에게 편지를 쓰게 했다. 태국어로 쓰고 다시 영어로 번역한 편지 한 장이 영봉 스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안녕, 친구들아. 너희들이 보내 준 85달러는 고맙게 잘 받았단다. 너희들의 고운 마음씨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우리는 새 생명 학교의 난민 학생들이다. 우리는 방과 후에 영어를 배워, 우리도 너희들을 만나길 바란다. 너희들의 성금이 우리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너희가 언젠 한 번 이곳을 방문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초대할게. 고마워.”

아, 한국 충주의 어린이들과 태국 메솿의 미얀마 어린이들은 만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아이들은 마음으로 만났으니 소중한 인연을 맺은 것이고, 그 인연이 언젠가는 반가운 만남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충주 세성초교 학생들이 미얀마 친구들을 돕기 위해 모은 85달러와 편지.



영봉 스님(가운데)이 새생명학교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초발심자경문 불교학개론, 근본불교 불교문화사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1교시: 18:30 ~ 19:50 ·2교시: 20:10 ~ 21:30	입학원서 1부(5,000원) 반명함판사진 3매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무 료
	2학년	한국전대종사 밀교사상, 천태수행론 금강경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법학경, 포교방법론 천태사교의, 유마경 종관사상, 천태정토 불교의식, 유식사상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1교시: 18:00 ~ 19:20 ·2교시: 19:30 ~ 20:50 ·3교시: 21:00 ~ 22:20	지원서 1부 반명함판사진 3매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 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02.3460.5300 신촌 성통사: 02.336.2052 봉천동 명락사: 02.889.7272 구로 명화사: 02.854.0196 망우동 삼통사: 02.496.3803 성남 화성사: 031.745.1482 부천 천화사: 032.671.5353	평택 법장사: 031.655.9090 수원 용광사: 031.255.4105 구리 금성사: 031.563.9364 안양 대안사: 031.459.3666 안산 월광사: 031.419.5048 인천 황룡사: 032.567.2533 오산 황덕사: 031.373.2126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7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우면AP,관문사에서 하차)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음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할라멘트로 빛이 윤택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 방생, 탈염이 행사용

정사초용 및 초롱 길이다

연등 (정품)

법당등(공당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